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031 FAX : 3460-1133
APEC 문의 : kslim@kiep.go.kr | KOPEC 문의 : kopec@kiep.go.kr

■ 발행인 : 蔡旭 ■ 편집인 : 金尙謙

Vol. 13. No. 1. 2010년 3월

2010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SOM2/MRT까지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시켜 초안 추가개발에 합의

▶ 지역경제통합

FTAAP 달성을 위한 가능진로 모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논의와 2010년 지역경제통합 우선과제의 진행사항 점검

▶ 다자무역체제지원

도하개발 아젠다에 대한 야심 차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APEC의 기여 및 노력방법 논의

▶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개발과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확대 필요성에 따른 성장전략 초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의 프레임워크 작업개발 승인. 또한 성장전략을 지원할 만한 우선실행과제(priority action) 논의

▶ 인류안보

무역 및 기업활동 위협요인 축소와 인류안보 중요성에 따라 경험공유와 구체적 제안. 관련실무그룹(working groups)과 대책위원회(task forces)의 2010년 수행과제 해결노력 강화

APEC SOM 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및 관련회의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I) 및 관련회의가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APEC 주요의제인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지역경제통합 촉진, 다자무역체제지원, 신성장전략, ECOTECH, 구조개혁, 인간안보, APEC 개혁에 대해 논의하였다. APEC 2010년 이념인 “변화와 행동(Change and Action)”에 대하여 필요한 “변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으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관련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주요 우선과제별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PSU 관점의 보고르 목표 이행진전도 보고서(PSU's paper on Progressing Towards the APEC Bogor Goals-Perspectives of the APEC PSU)와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보고서(assessment report on the achievement of the Bogor Goals) 초안의 전반적인 틀을 논의하였다. 2차 고위관리회의 및 통상장관회의까지 일본이 회원국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분석 보고서를 발달시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그룹에 한국과 멕시코, 페루가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 지역경제통합

이번 회의에서 FTAAP 구현을 위한 다양한 가능진로(possible pathways) 모색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방법요소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역내 RTA와 FTA 진행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졌다. 2010년 지역경제통합(REI) 우선과제로서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및 비즈니스환경 개선, 지역연계 향상, 무역원활화 도모에 대한 각각의 이니셔티브와 진행사항을 점검하

였다.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측면에서 교역에 대한 표준 및 기술장벽과 투자를 포함한 주요아젠다의 회원국 간의 수렴도모 이니셔티브와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작업프로그램 이행 이니셔티브, 지적재산권 강화 이니셔티브를 제창하였다. 비즈니스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2015년까지 주요 5개 분야에서 25% 개선에 대한 정상들의 지시행이 촉구되었고, 지역연계 향상 및 무역원활화 도모 측면에서는 공급망연계와 디지털연계,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강조되었다.



다자무역체제지원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방지와 다자무역체제 지원에 대한 보다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야심 차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APEC의 기여 및 노력방법을 논의하였다. 또한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발생억제와 시장개방을 위한 결속을 정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 정상선언에서 제기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개발과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확대 필요성에 따른 포용적(inclusive), 지속적(sustainable), 지식기반(knowledge-based)의 균형적(balanced) 성장전략 초안의 지속적인 개발과 정상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일본의 프레임워크 작업개발이 승인되었다. 또한 고위관리들은 경제위원회(EC)와 재무고위관리회의(SFOM)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 작업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구조개혁에 대한 성장전략과 post-LAISR 작업 간의 관련성(relationship)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함께 성장전략을 지원할 만한 우선 행동과제(priority action)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09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장관들이 결의한 2010년 이후 PSU 지원과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자원문제 논의와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점에 대응하는 방법논의가 있었다.



인류안보

2009년 정상선언에서 재결의된 아·태지역의 지속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무역 및 기업활동 위협요인 축소와 인간안보 중요성에 따라 경험공유와 구체적인 제안을 논의하였다.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명확한 행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SOM Friends of the Chair(FOTC)는 오는 10월 식량안보에 관한 장관회의 준비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고위관리들은 관련실무그룹(working groups)과 대책위원회(task forces)가 2010년에 수행되어야 할 관련문제 해결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제4회 재난대비 APEC CEO포럼 결과를 공지하였고, 하부협의체(sub-forum)의 향후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APEC 개혁

이번 회의에서 정책지원부서(PSU) 임무(mandate)를 2차 회의에서 결론지을 것으로 합의하였다. 의장은 모든 회원국들이 PSU가 그동안 달성한 성과를 인식하고 상당부분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정적인 PSU 활동을 위해 5년 간 임무연장이 제시되었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주요공여국”의 기준을 당초 “40만 불”에서 보다 많은 회원국참여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요건완화 측면에서 “상당한(resonable)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과 PSU 사업논의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제안되었다. 고위관리들은 책무성과 투명성 증진을 포함한 APEC 개혁작업과 보다 효과적인 경제회복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추진, 향후 20년 간 도전과제 달성방법에 관하여 지속적인 작업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A P E C

최근행사

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First meeting for 2010 제1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 회의 (2010. 2. 25~26, 일본 히로시마)

2010년 2월 25~2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APEC 주요과제와 이에 대한 2010년 CTI 작업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 회의의 주요이슈별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무역주의체제지원 및 무역원활화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와 하부협의체(sub-fora)가 다자무역체제지원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와 가능한 조치(potential action)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보교환 세션을 개최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에 대한 첫 시작으로 제네바 무역원활화 협상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2차 CTI에서 첫 번째 세션을 열고 협상자체에 대한 APEC의 지원 및 기여방법과 두 번째 무역원활화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I)과 공급망연결 이니셔티브

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에 대하여 WTO 논의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이 이 세션을 주도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지원할 것에도 합의하였다. 무역지원(aid-for-trade)에 대한 정책회담을 통상장관회의와 제2차 고위관리회의 사이에 개최하기로 호주에 의해 제안되었고, 페루는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2. FTAAP 모색 및 수렴(Convergence) 도모

2009년 완성된 FTAAP 분석연구 결과에 대한 개요를 한국이 발표하였고, FTAAP 협상과 같은 과정에서 협상기술에 대한 회원국의 수요에 따라 이에 대한 역량강화 조건을 가늠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제안하였다. 2차 무역투자위원회 회의와 고위관리회의까지 한국이 concept paper 작성을 주도하여 회람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부터 페루가 주도해 온 유사성/상이성 연구에 대한 조정작업(coordination work)을 태국이 넘겨받기로 하였다. 페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APEC 사무국 웹 도메인으로 넘기고, 2009년에 발효된 새로운 조약들을 반영시키

는 업데이트작업과 경제협력부분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를 태국이 2차 CTI회의까지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3. 기업친화적 원산지규정

2009년에 합의되어 작성된 작업현황보고를 검토하였고, 말레이시아의 “APEC 원산지 자율증명 선도자(APEC Pathfinder for Self-certification of Origin)” 참여를 환영했다. 이로써 참여국은 지난 3월에 참여의사를 밝힌 브루나이를 포함하여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로 9개국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2010-2011 원산지 자율증명 역량강화 프로그램(APEC Self-Certification of Origin Capacity Building Programme for 2010-2011)”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는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MAG(Market Access Group)은 원산지규정 이니셔티브관련 문서 및 절차간소화 요소 이행방법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미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의 진전상황과 나머지 요소에 대한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관세와 원산지규정에 관한 APEC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관련하여 2010년 11월 APEC 장관회의까지 공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의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

4. APEC 서비스 이니셔티브

2009년 승인된 서비스실행계획(Services Action Plan)의 목적을 되새기며, 서비스무역 요소를 정립할 수 있는 개별적이며 종합적인 노력에 대한 우선과제와 역량요건에 대한 행동양식(matrix of action)을 업데이트할 것을 합의했다. 프로젝트설계와 정보공유의 수단으로 서비스행동계획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2차 CTI 회의 이전에 다양한 하위협의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관련 활동을 반영하는 행동양식을 완성할 것과 APEC 사무국이 프로그램 디렉터를 통해 GOS(Group on Services) 지원에 대한 조정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5. 투자

FOTC에 의해 작성된 투자원활화행동계획(IFAP) 이행에 관한 2010년 집중할 작업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크게 세 가지(advanced principle, facilitation, promotion)로 구성된 투자로드맵 개발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발표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무역정책대화(Trade Policy Dialogue)를 2차 회의 기간에 열기로 합의했다.

6.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주요 환경상품 및 서비스 정책과 시장원동력, 도전과제를 규명하는 사례연구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말레이시아가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베트남은 환경보호와 무역원활화에 대한 세미나 결과와 함께 APEC 회원국의 무역과 환경표준 및 조치적용현황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통해 APEC이 향후 대응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밝힐 것이다. 싱가포르와 PSU는 환경변화 완화 및 적응에 바람직한 상품서비스의 규제모범사례(good regulatory practices for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or desirable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한국은 2010년 6월 20~24일 개최되는 “2010 APEC Climate Symposium”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7. 공급망연결

2009년 장관회의에서 승인된 공급망연결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향후과제를 논의하였고, 병목점별 포커스그룹을 생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싱가포르는 향상된 다모드연계(multi-modal connectivity)의 경제적 효과 연구와 물류사업 용이를 위한 투명성 이니셔티브(Transparency for Ease of Doing logistics Business initiative)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발표했다. APEC 물류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국내규

제자 규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14개국이 응답하였고 나머지 국가들도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8. 디지털경제 및 지식재산권

일본은 지식기반 성장을 위한 가능요소(possible Elements for Knowledge-based Growth) 연구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미국은 디지털번영체크리스트(Digital Prosperity Checklist) 수요조사에 대한 회원국과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회원들의 코멘트를 3월 30일까지 요청하였다. 캐나다의 Global Value Chains에 대한 워크숍을 3월 1일에 개최함에 따라 모든 CTI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일본은 국경 간 상호운영 가능한 물류센서네트워크 실행을 모색하는 “APEC 회원국의 공급망실현성 향상(Enhancement of Supply Chain Visibility in APEC economies)”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APEC Study Centre
Consortium Conference
APEC 연구센터 컨퍼런스
(2009. 7. 8~9, 일본 도쿄)

연락처 : 임경수 연구원 /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Tel : 02-3460-1031

3rd Meeting of ABAC 제3차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회의

(2010. 8. 24~27, 태국 방콕)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APEC SOM I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10. 9. 15~26, 일본 센다이)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s 최종고위관리회의

(2010. 11. 7~8, 일본 요코하마)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22nd APEC Ministerial Meetings 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0. 11. 10~11, 일본 요코하마)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18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제18차 APEC 정상회의

(2010. 11. 13~14, 일본 요코하마)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P E C C



PECC International Workshop: “Social Resilience”

(2010. 3. 3~5, 일본 도쿄)

일본의 JANCPEC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원활하고 회복력이 강한 건설적인 사회제도 구축을 위하여 “Social Resilience”를 주제로 2010년 3월 3~5일 일본 도쿄에서 PECC 프로젝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Pension System Research”, “Medicare System Research”,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Macro Analysis” 그리고 “Toward a Low Carbon Society”의 5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국의 정부 고위관료와 학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여, 나라별 사회안전망 현황과 제도를 심도 있게 논하고, 실패와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 참석자들은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현재의 위기는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미래의 또 다른 위기방지를 위하여 Social Resilience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각국이 다른 경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따라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자국의 정책수립에 좋은 귀감이 되는 것에 의의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KOPEC의 양수길 회장은 동 워크숍에서 Roundtable discussant로 참여하였으며,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마다 특징, 제도시스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션 5의 주제인 녹색성장 또한 경제성장의 또 다른 동력이며, 한국정부는 녹색성장정책이 한국의 GDP를 1.8%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며, 녹색성장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PECC 프로젝트: “Macro-financial Linkages and Financial Deepening in the Pacific Region”

(2010. 3. 6~7, 일본 오사카)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2008-2009 PECC의 State of the Region(SOTR) 설

문조사 결과 금융부문이 주원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2010~2011년 연구는 “Macro-financial Linkages and Financial Deepening in the Pacific Resgion”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3월 6~7일 일본 오사카에서 동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을 위하여 2010년 Pacific Economic Outlook(PEO) Structure Meeting이 개최되었다. 한편 하반기 PEO 2차 회의는 9월 11~12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OPEC은 한국 측 전문가를 파견하여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USAPC Annual Conference
(2010. 5월 중, 미국 워싱턴 D.C)

K O P E C



최근행사

KOPEC 아·태전략포럼 제1차 회의 (2010. 2. 4,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2월 4일 서울롯데 호텔에서 “G20 아젠다와 아·태지역경제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2010년도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양수길 KOPEC 회장은 한국이 G20 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동아시아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KOPEC은 설립 이후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적 이슈와 국제적 이슈를 연결하는 가교역할, 국내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입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2010년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에 기여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밝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동 회의에서 “새로운 G20 시대, 아·태지역협력기구의 과제”를 주제로 보다 효율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동아시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동아시아공동체 발전과정의 장애물에 대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역내에서 맡을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과, 동아시아가 현재 ASEAN vs. 한중일로 분리되고 있으며 이 두 그룹을 연결하는 유기적 협력관계가 없는 것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끝으로 동아시아의 성장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관계에서, 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가교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신제윤 외교통상부 국제업무정책관리관은 “G20와 아·태 금융협력”을 주제로 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신성장동력이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이 G20에 포함되면서 APEC 내 이들의 역할이 중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G20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말하며, 나아가 ASEAN+3와 G20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은 G20로부터 ASEAN+3에 전파시키고 반대로 아시아의 목소리를 G20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U

의 경우 G20에서 결정된 사항이 바로 반영이 되지만 ASEAN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함을 설명하며, 지역 협의체 간의 개발발전 속도를 조화시키는 것도 한국의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한국이 G20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Non-G20 국가들의 대변인 격으로 의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KOPEC 제40차 이사회 겸 제24차 총회 (2010. 3. 23,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3월 23일 서울에서 KOPEC 제40차 이사회 겸 제24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제40차 이사회는 총원 18명 중 18명 참석(참석 3명, 위임 15명), 제24차 총회는 총원 55명 중 44명(참석 13명, 위임 31명)으로 성원되었으며, 지난해 이사회 및 총회 결과보고와 함께 200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2010년도 실행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양수길 현 회장의 회장직 연임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양수길 회장의 임기가 연임되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사직 사퇴(안)가 원안대로 통과함과 동시에, 이사직 사퇴 및 집행위원회관련 정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특히 양수길 회장은 KOPEC이 지난 3년간 기존의 해외네트워크 위주의 업무에서 더 나아가 국내외 Constituency의 균형 및 조화를 맞추는 데 주력하였으며, KOPEC의 아·태전략포럼과 고위자문회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하였고, 이를 정례화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문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의 의견을 국제회의에 전달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차 회의 (2010. 5월 초경)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



- ▶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ailand, Narongchai Akrasanee, 2010
-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um Report,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 Workshop on Measures to Promo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The Next Wave, PECC & APRU, 2009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Market Volatility and the Food System, Pacific Food System Outlook Project, 2009
-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9
-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KOPEC & ISEAS, 2009
-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Synthesis Report, KOPEC, 2009
-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8
- ▶ Labou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ynamics, Issues and a New APEC Agenda, KOPEC & ISEAS, 2008
- ▶ Demographic Change and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 Implications for Busines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ynthesis Report, KOPEC, 2008
-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7
- ▶ An APEC Trade Agenda: The Political Economy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PECC & ISEAS, 2007
- ▶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07
- ▶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2007
-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6
-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Finance

-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Trade

-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 Papers on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Memory of Bijit Bora, 2010

- Outlooks

- ▶ Pacific Economic Outlook: External Adjustments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in the Pacific Region, 2009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8-2009: Climate Change and the Food System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7-2008: Linkages to growing urban markets spur rural development, 2007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2006, 2005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곽소영 연구원)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